# 북스

Books

## 음반 속의 클래식 역사

### '클래식, 그 은밀한 삶…'

클래식 음악의 흥망성쇠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책이 나왔다.

영국의 음악 평론가 노번 레브레히트가 펴낸 '클래식, 그 은밀한 삶과 치욕스런 죽음'은 '클래식 음반'을 통해 본 클래식의 역사다.

1부에서는 클래식 음악 녹음과 관련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담았다. 2부에서는 그라모폰과 진행했던 '엔리코 카루소의 첫 번째 레코딩'(1902년) 등 저자가 뽑은 '불멸의 명반 100'이 실렸으며 3부에는 '최악의 음반 20'을 담았다.

각 음반 소개글을 통해 음악가와 연주자에 얽힌 에피소드를 보는 재미가 가득하다.

〈마티·1만 9천원〉

/김미은기자 mekim@

# 만들어진 이미지, 감춰진 절반의 역사

## 세상을 바꾼 여인들

### 이덕일 지음

오는 6월 발행되는 5만원권 지폐에는 신사임당의 모습이 그려진다. 국내 지폐에 여성 초상이 독자적으로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인물 선정을 둘러싸고 한동안 시끄러웠다. 줄곧 남자 위인들만 차지했던 지폐 속 권위를 여성에게 부여하려다 보니 반발이 따랐다.

우리 역사 속 여성들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 역사의 온갖 미스터리를 객관적 사료를 토대로 선명하게 풀어내고 있는 사학자 이덕일씨의 '세상을 바꾼 여인들'은 이들 여성들의 진면목을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책의 첫머리에서부터 신사임당에 대한 독자들의 선입견을 깬다. 신사임당은 실제 현모양처가 아니라 조선의 질서에 맞선 절개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이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사임당이 결혼 이후 19년 동안이나 친정에서 기거한 행적은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행동이다.

또 아이들의 교육에도 직접적으로 참여해 이이를 비롯해 넷째 이우, 맏딸 이매창을 학문과 예술을 갖춘 인재로 길렀다. 이처럼 사임당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남성의 권위에 가려 살아가는 아내,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뜻을 당당하게 펼친 여성으로의 삶을 살았다.

최근 드라마로 방영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천추태후는 오랫동안 탕녀로 낙인 찍힌 여성이다. 이미 장성한 아들이 있었음에도 섭정을 했고, 조카를 제거하면서 까지 권력욕에 눈이 먼 여인으로 알려져 왔다.

저자는 그녀가 고려 초기에 남긴 족적이 매우 큰 여인이라고 평한다. 천추태후는 오빠 성종의 중국식 유학정치 체제에 맞서 고려 전통을 지키고 나아가 고려를 대제국으로 만들려고 했고, 왕건의 북진정책을 실현시킨 여걸이었다. 또 전통사찰 창건, 연등회, 팔관회 등을 통해 고려의 전통사상을 회복시켰다.

'골품제 덕에 임금이 되고 남편을 셋이나 갈아치운 여자'라는 혹평을 받고 있는 신라의 선덕여왕도 왕실의 번영을 이끈 중요한 인물이었다. 그녀는 숙부, 조카들과 결혼 했는데 친족과의 결혼은 당시 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또 신라가 삼국통일의 기반을 닦은 시기가 바로 선덕여왕 때였다. 그녀는 황룡사 9층탑을 세워 신라가 삼국 중 중심국가가 되는 비전을 제시했다. 또 전선을 누빌 수 없는 여왕이라는 핸디캡을 김유신, 김춘추 등 적극적인 인재 등용으로 타개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편견 속에 저평가됐던 이들 여성들은 자신의 운명과 한계를 적극적으로 극복하고, 역사의 당당한 주역으로 자리 잡았다.

이밖에 원을 다스린 여제인 기황후, 조선 여성을 지배한 안방의 제왕 인수대비 한씨, 신분제의 굴레에서 벗어난 장희빈, 고구려와 백제를 세운 숨은 주연 소서노, 가야제국의 공동시조 허황후, 삶이 곧 페미니즘인 예술가 나혜석 등 세상을 바꾼 여성 25명의 삶을 추적한다. 〈옥당·1만8천9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조선의 질서에 맞선 신사임당

삼국통일의 기초를 세운 여제 선덕여왕

## 존 메이너드 케인스 1·2

### 로버트 스키델스키 지음·고세훈 옮김

# 금융 위기 시대 다시 보는 케인스

대공황 직후인 1933년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는 "만일 정부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현존하는 모든 계약 구조와 차입 수단이 차례로 붕괴하고, 금융기관과 정부의 리더십에 대한 철저한 불신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참으로 불길한 예언이지만, 작금의 금융위기와 놀랍도록 정확하게 일치한다.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의 구세주로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 1883~1946)가 부활했다.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를 맞은 요즘 미국과 영국,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정부가 대규모 재정지출로 경기부양을 시도하고 있다. 케인스의 처방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이다.

연세대 고세훈 교수가 때맞춰 번역 출간한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위기의 시대에 왜 다시 케인스를 찾는가를 차근차근 보여주는 전기다.

영국의 역사학자이자 경제학자인 로버트 스키델스키가 30년에 걸쳐 완성한 대하 3부작을 단행본용으로 40% 축약했는데도, 1천645쪽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고 세밀하다.

책은 케인스가 얼마나 독창적이고 재기 넘치는 경제학자인지를 보여준다.

그는 전 생애를 통해 한결같이 3가지 경제학적 주제들을 탐구한다. 첫째는 어디나 만연해 있는 불확실성이다. 그는 불확실성 때문에 '돈맥경화'가 발생한다고 봤다. 둘째는 경제는 유체(fluids)가 아니라 점성 덩어리(sticky masses)라고 봤다. 한번 충격을 받으면 회복이 더디고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 셋째는 정부의 의무다. 정부는 자원을 합리적인 선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해서 경제적 삶을 가능성의 최대치 또는 그에 접근한 수준까지 유지시킬 의무가 있다.

하지만, 케인스의 이론이 권위를 가지게 된 것은 흔히 알려진 대로 뉴딜정책의 성공 때문이 아니다.

그가 루스벨트 대통령을 만나 적자를 무릅쓰고 재정 지출을 대폭 늘리라고 제안했으나 '균형예산'을 중시했던 루스벨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2차 대전으로 막대한 군비지출이 이뤄지면서 실업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됐다.

이제 그의 처방이 어떤 효력을 발휘할지 지켜볼 때다. 저자는 "케인스의 사상은 세계가 필요로 하는 한 살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후타니마스· 1권 3만5천원, 2권 3만원〉

/김주정 경제부장 jjnews@kwangju.co.kr

## 새책

▲진화론의 유혹=세상의 모든 현상을 찰스 다윈의 진화론적 사고방식으로 설명한 책. 저자 데이비드 슬론 윌슨은 이 책에서 진화론의 핵심 개념을 설명하며 진화론이 생물학의 문제뿐만 아니라 철학적, 사회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북스토리·2만5천원〉

▲내인생의 탐나는 자기계발 50 =데일 카네기의 '카네기 인간관계론'부터 피에르 테야르 드 샤르댕의 '인간현상'까지 자기계발서 분야에서 호평받는 책 50권을 선정하고 각 책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 소개한다. 각각의 책에 대한 비판과 지적을 정리한 '간추린 평'도 함께 실었다. 〈흐름출판 ·1만6천원〉

▲건강기사 제대로 읽는 법=우리가 접하는 무수한 건강 정보 가운데 과연 진실은 얼마나 될까? 현직 의료전문기자 김양중씨는 "언론매체가 너무도 자주, 의도적으로 혹은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한다"고 고백한다. 저자는 "이 문제의 해결책은 건강 정보에 대한 독해력을 키우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위즈덤하우스· 1만3천원〉

▲사과향의 요리 백과=200만 방문자를 돌파한 네이버 파워블로거로 활동중인 사과향(본명 김지현)의 요리책. "오늘은 무얼 만들지?" 라는 고민을 한꺼번에 해결해줄 건강하고 맛있는 다양한 메뉴가 한권의 책에 들어 있다.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265가지 요리의 재료와 만드는 법을 맛있게 설명했다. 〈웅진웰북· 1만4천800원〉

▲가슴으로 보는 영화 이야기=영화평론가 장석용씨가 지난 10년간 나온 영화들을 비평한 두 번째 평론집. 평이한 문체로 독자의 정서에 호소하면서 영화에 접근했다. 그는 흥행작 '워낭소리'에 대해 "법화경 위로 숨결처럼 가볍게 와 닿는 스침, 산사의 작은 풍경소리처럼 워낭은 울림이 있다"고 평했다. 〈종문화사· 3만5천원〉

▲카멜레온의 항해일지= '1년만 미쳐라'의 저자 강상구가 카멜레온이 100일간의 항해에서 보여주는 모험 이야기를 통해 현재 각 분야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필히 겪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우화 형식으로 쉽게 흥미롭게 제시한다. 〈좋은책 만들기·1만2천원〉

▲더 먹고 싶을때 그만두거라= 평생을 농업과 관련한 직무에 바쳐온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칼럼집이다. 농학자로, 친환경유기농 운동의 대부로, 농림부 장관으로 농민과 함께해온 저자가 현재 맡고 있는 상지대 총장직 퇴임을 앞두고 그동안 여러 매체에 기고해온 칼럼들을 모아 책으로 펴냈다. 〈한국농어민신문·1만5천원〉

▲소현세자 1·2·3= 인조의 장남으로, 병자호란 뒤 심양으로 끌려갔다가 환국 후 돌연 사망한 소현세자를 주인공으로 한 역사소설. 이정근씨가 오마이뉴스에 연재한 글을 엮은 것으로 사료조사와 답사를 바탕으로 소현세자의 개인사뿐 아니라 당시 격동의 조선사를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책보세·1만1천원〉


대인동삼일부동산
☎(代)223-1140, 5210 핸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젼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직접거래
010-8004-6669
고흥 녹동 고속터미널옆
(봉암리조선소 확정지역)
상가부지 500평~700평
(당 50만원)
시세절반 가격
고흥 득량도(섬)
800평. 평당3만원
낚시터, 별장지역으로 최적
고흥 바닷가 전원주택지
(답) 812평
(현황도로접)
평당 1만2천원
금 1천만원
고흥군 조용한 바닷가 외딴지 전세 2천 노부부 생활비 제공함.

금보부동산컨설팅
☎(代)261-8949 핸 011-602-2233
(산수동 543-51(두암타운입구 삼거리)
▶싼땅매매
▶건물매매
▶고시원 및 원룸주택매매
▶주유소매매
※ 주유소 부지, 사외 주유소 매물 다량 보유 상담 환영
※ 토지, 건물, 원룸 물건 다량 보유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시장흐름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자산컨설팅명가
광주·전남권 토지·건물 구함
Tel:062)973-9174, 016-757-8800
토지구함 수완지구 상업용지 건축상담
첨단지구상업용지
1100평 40억(평당 470만)
200평 22억(평당 1100만)
수완택지개발지구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
생활대책용지
신창택지개발지구
상업용지 140평 근생 122평 80평
주유소
650평 35억 600평 16억
골프연습장 : 120억
광주지역 녹지
주유소부지 890평 930평
물류공장부지 2900 2600 4900평
수완동 4차선접 1200평 1800평
북구본촌동 850평
전용가능한급매물
자연녹지 : 3800평-대형차진입가 6차선접
생산녹지 : 2800평-평동공단인근 특가상담
우량임야
(연수원 복지시설 골프장 축사 등)
담양 25만평 장성 14만평 보성9만평
보성 56만평 함평50만평
투자대비 수익성이 높은
골프연습장 매매가 17억 5천만원
쌍촌동 260평
2종주거지역 긴급처분
투자유망 평당 450만
화순읍 주거지역 2400여평
공장
하남공단 800평
건물매도
27억 (보증금 3억5천 월1900만)
19억 (보증금 1억5천 월1300만)
투자가치최고의 절세형 물건
◎광주·장성권 토지·건물◎
투자유망물건 다량 보유 (0천만원~000억원)
062)973-9177, 010-3625-1362
첨단지구 국민은행 주차장으로 오십시오

현대공인중개사
☎(062)371-1900, 핸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지점, www.85858949.co.kr)
토지매매
◎투자 최적지
(전원 주택, 창고, 공장부지)
•국가 산단1차단지 인근, 5561㎡ (약 1,682평) 관리지역, 현재 과수원매매가 2억 3천만원
◎전시장 정비공장부지 -광송간 도로변
•신촌동 준주거지역 대지337평 평당 200만원
◎카센타 식당부지 -광송간 도로변
•송정동. 상업지역 대지 294㎡ (89평) 평당 300만원
◎창고 공장부지-벽진동
•대지 697㎡ (212평) 매매가 2억5천만원
◎공장 식당 창고 장례식장 -매월동 준공업지역
•35미터 도로변 2,780㎡ (약840평) 매매가 23억
◎상가부지
•봉선동, 남구청 인근, 아파트 밀집지역, 2종 일반지역 267평 매매가 8억
◎나주 남평 관리지역 -요양원 공장 물류창고
•현재 농장, 약15,000평, 매매가 상담후 결정, 분할도 가능함
찾는물건
◎상가건물 ◎원룸부지 ◎모텔매매임대 ◎유흥주점 노래방 매매 임대
상가건물/고시원/모텔/원룸 매매
◎고시원매매(매매가 7억9천만원)
•전대부근, 대출3억원, 44실, 월수 900-1천만원
◎원룸매매(매매가 12억원)
•금호타이어앞, 원룸30실, 투룸6실, 안집2실, 보증금4억8천만원, 월653만원, 대출4억
◎상가건물매매(매매가 11억원)
•상공회의소앞, 지하1층, 지상4층, 대출5억, 보증금1억8천만원 월 750만원
◎매매가 16억원 -남구 봉선동 신축건물
•지하1층, 지상4층, 보증금4억, 월680만원, 대출6억
◎모텔매매-상무지구(매매가25억)
•지하1층, 지상5층, 객실31실, 대출11억5천만원, 유흥주점유
◎모텔매매-첨단(19억5천만원)
•7층건물, 객실32실,대출12억원, 유흥주점유
◎모텔매매-첨단(매매가 26억)
•8층건물, 객실25실,대출10억원, 유흥주점유
♣기타 상업용 건물 다수 확보
모텔/주유소/가든/원룸/고시원/특욕탕/상가건물 매매나 임대
♣건물 신축부지 토지 다수 확보
공장/창고/병원/전시장/원룸/모텔/가든/대형마트/예식장/전원주택 카센타/정비공장/기타

수완지구
월드공인중개사무소
☎ 062) 959-1033, 019-608-3372
건물분양 및 임대
◉ 수완최고 요지 상업지역 35*12m 버스정류장 옆 ◉
월드프라자 6층건물 (3월 15일 준공)
금은방, 안경점, 브랜드 의류, 슈퍼, 식당
한의원 및 병원 학원 및 독서실 등
◉ 송원프라자 즉시 입주가 5층 건물 ◉
슈퍼, 식당, 사무실, 학원, 독서실
※상업지 및 원룸부지 급 구함.
아파트 문양권:마이너스 최저가 다량보유
우미, 현진, 코오롱, 모아,새한,대주 등